

나는 남자도 아니다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역사나 문화에 관한 소양이 없는 변호사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W.스콧)

옛날에 피조리와 빠꾸기 그리고 따오기가 서로 우는소리 좋음을 다투었다. 이들은 다툼이 심해 지자 몸집이 훨씬 큰 황새에게 판결을 부탁하자고 합의했다. 아무래도 목소리에 자신이 없었던 따오기는 개구리와 우렁이 등을 잡아 황새에게 바치며 정탁을 넣었다. 당시는 김영란법이 없었던 때라 황새는 ‘개구리 뇌물’을 덱석 받아 챙겼다. 이윽고 송사의 날이 밝았다.

먼저 꼬꼬리가 고운 소리로 아뢰니 ‘봄의 숲 속에서 춘풍을 타고 우는 소리’인 듯했건만 황새는 ‘그 소리가 비록 아름다우나 애잔하여 쓸 데가 없다’고 하였다. 이어 빠꾸새가 마치 ‘아이유(24)의 삼단고음’ 같은 고성(高聲)을 자랑했으나 황새는 ‘외로움이 너무 배어 있다’며 물리쳤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된 따오기. 자신 없는 목소리로 한마디 ‘따욱’ 했을 뿐인데 황새는 “마치 장비

의 호통 소리만큼 웅장하다”며 무릎을 쳤다. ‘황새 결승’이라는 제목의 고전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다.(‘결승(決訟)은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소송 사건을 판결하여 처리함을 말한다.)

인간의 송사(訟事) 문제를 조류(鳥類)에 가탁(假託)하여 표현한 우화소설로는 조선시대 후기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 ‘까치집’도 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까치가 높은 나무 끝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학·두루미·까마귀·꼬꼬리 따위의 온갖 우족(羽族) : 날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 들을 초청하여 낙성연(落城宴)을 베풀다.

잇단 막말과 ‘황당 변론’

그러나 초청받지 못한 비둘기가 불만을 품고 찾아가 다투다가 까치를 죽이고 만다. 과부가 된 암 까치는 군수에게 고변(告變)하게 되고 낙성연에 참석한 우족들의 증언을 듣게 된다. 하지만 이미 뇌물을 먹은 두꺼비가 까치의 실족사라고 위증을 하는 바람에 비둘기는 풀려나게 된다.

이 엄중한 시국에 나는 왜 이리 한가롭게 옛날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해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을 돕고 있는 그 많은 변호사들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 때문일까? 돈만 있으면 귀신도 하인처럼 부릴 수 있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을 돕고 있는 변호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

은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걸까?

얼마 전 최순실을 향해 “염병하네”라고 외친 정소노동자가 국민의 마음을 사이타처럼 시원하게 하더니, 또 얼마 전에 법원 재판장에서 변호사를 향해 “돈이 그렇게 좋냐?”라고 외친 여성이 화제가 됐다. 이 여성 방청객 역시 변호사들이 거액의 돈을 받았으리라고 짐작했을 것이다.

국정 농단 사건이 처음 드러나기 시작할 때만 해도 날이면 날마다 터져 나오는 소식들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 소설이나 영화보다 재미있기도 했다.(실제로 소설책이 안 팔리고 영화 관객이 줄었다고 한다) 한때 요즘엔 뉴스를 보면 울기만하다 못해 짜증이 나고 부아가 치미는데, 이게 다 죄 지은 사람들의 후안무치(厚顏無恥)와 변호인들의 온갖 ‘황당 변론’ 때문이다.

“난세의 영웅? 나라가 어지러우니 구국의 의인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서석구, 김평우, 김진태, 정광용, 정규재, 주옥순, 신혜식, 장기정, 윤장중... 헤아릴 수 없는 태극기의 영웅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들 중 최근엔 김평우(72) 변호사의 맹활약(?)이 돋보인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했다는 그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한 말을 들으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것 같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하면 어찌 대한민국의 남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 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니

거 참. 이제 나는 졸지에 남자도 아니게 된 것인가. 김 변호사의 아버지는 소설가 김동리(1913~1995)다. 김동리는 결혼을 세 번 했는데 생전에 “첫 번째 여자에게서는 자식을,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재산을, 세 번째 여자에게서는 사랑을 얻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김동리 작가의 명예를 아들이 망쳐 버렸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또 잇그제 현재 변론에서 ‘법(法) 대신 ‘법’을 외치며 재판 진행까지 방해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노가 있어 어지럼증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하니 점심 식사 후 변론하겠다고 때를 쓰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샷대질과 고성으로 항거(?)한 것이다.

변호사법 1조를 아시나요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선망의 대상이다. 물론 유명인이나 재력의 심부름이나 하는 ‘집사 변호사’들도 있고 있다. 집사(敎師)란 주인 가까이 있으면서 그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엔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수임 경쟁 과열 등으로 인해 일반인을 상대로도 심부름 업무를 주로 맡는 변호사도 많다.

변호사 세계에서도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이 어김없이 적용되는데 대통령이나 최순실 측 변호인들이야 ‘먹을 것’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국

정 농단 죄인’들을 저리 지키려 하지 않다가도 모르겠다. “이 짓 하려고 변호사 됐다” 하는 자괴감이라도 있으면 좀으려만 그런 기색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얼마 전 특검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를 변호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피의자의 인권까지 챙겨 주었는지도 알 수 없다.

물론 그 누가 뒀든 인권을 지켜줘야 할 중요한 가치다. 혹은 헌법 1조 말고 대한민국 변호사법 제1조를 아시나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거야 당사자인 변호사들이 훨씬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앞부분의 ‘인권 옹호’는 말하면서 뒷부분의 ‘사회정의의 실현’은 애써 모른 채하는 건가.

“서울이 피로 뒤덮일 것이다.” “법관은 약한 여자 편들어야.”

거친 막말의 법정 모욕과 ‘황당 변론’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국정 농단’에 이은 변호인들의 ‘헌재 농단’을 보며 W.스콧(영국의 시인·소설가·변호사)의 명언을 되새기게 되는 요즘, 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신문의 ‘한 톨 만화’에 시선이 확 쏠렸다. 개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작가의 생각을 적은 글(지문)이 무릎을 탁 치게 한다.

“개는, 자신의 주인이 아니면 지극히 ‘선한 자’여도 무조건 짓고... 주인이 아닌 ‘약한 자’여도 먹이만 주면 꼬리 치며 따른다.”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난관...연내 개소 못하나

정부, 출자·출연기관 승인 제동

사업·운영계획 등 구체화 요구

국학 관련 문집과 고문서, 서화 등 호남권에 산재한 한국학 문화유산을 관리·연구하기 위한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이 첫 난관을 맞았다.

지난해 법안 설립 등 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였지만, 행정부의 출자·출연기관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3일 주민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한국학 호남진흥원을 설립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부는 최근 실무협약에서 출자출연기관 승인에 대해 보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현재 운영중인 국학진흥원(경북 안동), 한국학중앙연구원(경기 성남) 등과의 차별성이 약하고, 관련 자료 파악도 구체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고 시는 전했다. 진흥원의 초기와 중장기 사업 및 운영계획 구체화 등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라” ‘박근혜퇴진 광주시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연장과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부실·방만한 운영, 지자체 재정난 가중 등의 한 원인으로 인식돼온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을 대폭 강화한 행정부의 최근 기조도 큰 부담이다. 지난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실시설계비가 예정위에서 삭감된 것도 광주시 입장이 난처한 이유다.

광주시는 행자부 승인이 나는대로 등기, 발기인 총회, 조직구성을 거쳐 올 상반기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부와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미뤄지면 애초 계획대로 연내 개소도 물 건너갈 우려도 크다. 진흥원의 주요 사업은 한국학 관련 자료 발굴과 관리, 자료관 운영, 학술연구 및 교육, 호남 관련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민간

연구조직 지원과 컨설팅 등이다.

사무국과 총무부, 자료연구부 등 1국 2부 체제(18명)로 출범한 뒤 장기적으로 2국 4부 체제(50명)로 확대한다. 170억원을 들여 행정동, 연구동, 수장고 등을 갖춘 진흥원 건물을 건립하고 지방비 300억원을 출연해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356명 신규 채용...취약계층 별도 선발

광주시는 23일 올해 신규 공무원 356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사회복지직 채용공고에 이어 24일 7~9급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와 시험 일정을 공고한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257명 ▲기술직군 99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10명 ▲8급 8명 ▲9급 338명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채용 규모다.

직렬별 채용인원은 ▲사회복지직 83명 ▲행정 156명(일반 101·장애인 16·저소득층 12·시간선택제 26·북한이탈 주민 1) ▲세무 7명 ▲전산 3명 ▲사서 8명 ▲공공 18명 ▲농업 1명 ▲녹지 5명 ▲보건 8명 ▲간호 8명 ▲환경 6명 ▲시

설 37명 ▲방재안전 4명 ▲방송통신 3명 ▲운전 2명 ▲의료기술 2명 ▲수의 1명 ▲약무 1명 ▲연구·지도직 3명이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 21명, 저소득층 21명을 구분 선발하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34명, 특성화고·마이스터 고교 졸업(예정)자도 5명 선발한다.

제1회 사회복지직(83명) 시험은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가운데 오는 4월8일 필기시험과 5월25일 면접시험을 거쳐 6월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제2회 8·9급(260명) 시험은 4월17일부터 21일까지 원서를 접수, 6월17일 필기 시험을 실시한다. /최현배기자 cki@

2020년까지 전남·북 조선 대체 6조 투자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밀집지역 5곳에 2020년까지 15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기준 5개 조선밀집지역에 올해 4조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15조원의 민간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전북지역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6

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석유화학, 기계, 항공 등 기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9조원의 투자가 계획돼 있다.

또 이날 산업부는 8개 에너지 공기업과 부산광역시 파라곤 호텔에서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24일에는 영암군 산업단지공단에서 2차 설명회가 열린다. /연합뉴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光州日報

신문구독 (062)227-9600

예향구독 (062)220-0551

광고문의 (062)227-9600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무료공개 | 조선대 3월 2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강의일시 | 교육대 3월 6일(월)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자도 고수익을 볼.

2017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 2017년 3월 10일(금)
교육기간 : 2017년 3월 2일(목) ~ 2017년 6월 8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강료 : 20만원 (예금주: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국 010-9416-1200

2017년도 1학기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 2017년 3월 10일(금)
교육기간 : 2017년 3월 2일(목) ~ 2017년 6월 8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강료 : 20만원 (예금주: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국 010-9416-1200

공장 매각 공고

가. 공개매각 부동산 현황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면적(m ²)	감정평가액(원)	비고
1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611-9	공장	7,316	2,796,034,900	제1공장
			기계기구	8식	271,394,000	
			소계		3,067,428,900	
2	339-17	공장	2,524	1,012,938,000	제3공장 (중대조립장)	
		기계기구	6식	245,133,000		
		소계		1,258,071,000		

나. 공개매각 가액 및 입찰일정

순번	차수	입찰일시	공매 예정가액(원)			
			건물	기계기구	부기가치세	합계금액
1	제1차	2017.3.13(월) 10:00~11:00	2,925,879,338	283,997,205	320,987,654	3,530,864,197
	제2차	2017.3.13(월) 14:00~15:00	2,633,291,404	255,597,485	288,888,889	3,177,777,778
	제3차	2017.3.14(화) 10:00~11:00	2,369,962,264	230,037,736	260,000,000	2,860,000,000
	제4차	2017.3.14(화) 14:00~15:00	2,014,467,924	195,532,076	221,000,000	2,431,000,000
2	제1차	2017.3.13(월) 10:00~11:00	1,041,222,139	245,133,000	128,635,514	1,414,990,653
	제2차	2017.3.13(월) 14:00~15:00	937,099,924	220,619,700	115,771,962	1,273,491,586
	제3차	2017.3.14(화) 10:00~11:00	843,389,933	196,106,400	103,949,633	1,143,445,966
	제4차	2017.3.14(화) 14:00~15:00	716,881,442	171,593,100	88,847,454	977,321,996

다. 부동산 공개매각 실시 장소 및 입찰방법

- 장 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양로 24 제2공장 내 사무동 2층 회의실
-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토서 성립.(단독입찰 가능)
- 개찰 : 입찰 종료 후 입찰 장소에서 개찰
- 낙찰자 결정 : 최저입찰가격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최고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 동일금액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최고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추측에서 재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

2017년 2월 24일
공고인 : (유)서원중공업(061-463-8870, 010-4644-2353)